

제2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8. 6(금), 16:00 ~ 20:2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2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김관균, 김용호, 박상호, 박윤규, 박철균, 오동석, 이재호, 이해진, 임원형, 조중열 평의원(이상 12명)
- 불참 평의원 : 임재수 평의원(이상 1명)

4. 회의안건

가. 의안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
- 펀드 관련 감독 관청 감사 의뢰 기관 결정
- 대학 본부의 약학대학 설립 관련 재정 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 논의
- 대학 본부의 종합관, 병원 웰빙센터, 임상수기센터 건설사 계약 과정을 포함 건축 진행 보고 및 관련 예산 청취 논의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회의 성원 보고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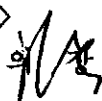
간사 김근태 : 현재 총 13분 중에 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무 :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추경예산 자문 등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서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추경 자문 안 그리고 펀드 관련 감사 의뢰 안 입니다. 먼저 추경 자문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료원부터 2010학년도 의료원 추가경정(안)을 설명 해 주십시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의료원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신경외과 조기홍이라고 합니다.

- 2010학년도 병원회계 1차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397,430,6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간서명 란 >



- 2010학년도 교비회계(의과대학 등) 1차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58,808,3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박영무 :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10페이지에 전출금 주요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 전출금이 4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법인 전입금이 59.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요인 설명을 보면 임대사업 관련하여 42.6억에서 59.7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것 같은데, 10페이지는 42.6억이고 15페이지는 왜 42.6억에서 59.7억으로 증가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임대사업 관련해서 1년에 42.6억 정도가 임대료로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법인에서 전입시킬 때 미수납되었던 17억이 이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59.7억으로 잡았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미수납되었던 금액이 이번에 전부 반환된 것입니다. 17억이 교비로 전입이 되었고, 지난해 미리 교비로 전출한 금액을 합쳐서 교비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교비운영비 전출을 2억만 반영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비운영비 지원을 본예산에서는 71.7억 예산을 반영하여 69.7억을 줄여 추경에서는 2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인 전입금 17억 증가와, 작년에 미리 전출한 금액이 얼마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약 42억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69억이 법인 전입금 17억과 미리 전출한 42억을 감안하면 59억으로 충당이 된다는 건데, 약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상의 변동이 있는 건가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의대 자체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있습니다. 실험동물실이 조금씩 지체되면서 예상했던 지출이 늦어졌는데 그것이 약 16억이고,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약 22억)이 줄었으며 실험동물실 이월 및 인건비, 기타운영비 등 줄어드는 금액을 합쳐서 약 38억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은 직원 용인가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직원용입니다. 현재 보유한 구좌수로는 1년에 신청 교직원의 1/3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아서 5구좌를 늘리는 것입니다.

< 간서명 란 >

YAC 장

평의원 이재호 : 19쪽에 MD-PhD과정 연구비 70,000천원은 해당 학생들을 위한 연구비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기획과제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MD-PhD과정에 있는 연구강사가 정착하는데 지원하는 연구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대상되는 사람은 현재 군대 가는 대신에 기초의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인가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기존에 두 사람 지원 해주고 있고, 신규 교원을 새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7페이지에 광고특별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아주대와 의료원 옆에 있는 광고 R&D 부지 약 4만여 평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이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광고신도시 특별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경기도에서 이 땅에 대해 R&D 부지로 용도를 확정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대가 상당히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용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여 연구소나 의료시설을 안치하는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땅을 파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는 살 능력은 없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타당성 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경기도를 설득하여 중증외상센터나 치매병원 등 공공의료를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이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적 걸림돌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R&D부지로는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아주대학교에서 관련된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장 박영무 : 20페이지에 보면 실험동물센터 관련하여 16억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실험동물센터 총 공사비가 51.3억입니다. 2009학년도에 21억을 쓸 예정이었으나, 공사 진척이 늦어서 실제로 5.8억을 집행하여 잔액

이 15.5억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30억이 잡혀있는데, 작년도 쓰지 않은 15.5억과 강의실 변경 70,000천원을 추가하여 16.2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웰빙센터 관련해서 변경은 없습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웰빙센터도 공사 진척의 차이는 있습니다. 웰빙센터 총 공사비는 267억으로 작년도 예산은 36억이었으나 실제로 32억을 집행하여 4억 잔액은 있습니다. 올해는 137억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웰빙센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동물실험센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웰빙센터는 올해 2월부터, 실험동물센터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건설사는 어디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웰빙센터는 대창기업, 실험동물센터는 대우자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진 평의원 참석)

의장 박영무 : 계약과정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제가 입찰과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이번 추정예산(안)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어 건설사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돌아가서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건축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건축비 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박영무 : 웰빙센터는 267억이고, 실험동물센터는 52억으로 대충 보면 평당 450만원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건설사 선정과정, 건축비 평가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센터 본 예산은 30억인데 총 공사비가 52억으로 16억이 늘어나, 약 30%의 건축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것은 70,000천원이고요, 15억은 작년에 안 썼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 된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러한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간서명 란 >



평의원 이재호 : 질문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 법인에 진출했던 부분 중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 평의원에서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이고, 법인에서도 책임을 다한 것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건축에 관한 사항은 추후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료원 추경(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안을 상정합니다.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네, 자료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0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의장 박영무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약학대학하고 그 다음에 종합관하고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계약 과정이라던 지 전설단가 이런 정보를 평의원회 전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의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자문을 하는 이유는 학교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예산 자문의 목적인데 건물은 몇 년 전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손대지 않고, 그 몇 년 부분의 예산만 자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개가 되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약학대학 공사비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래도 예산 계획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약학대학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학대학 관련 예산에 대해 약학대학 설립관련조달 및 지출에 관하여 학교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 이렇게 요청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게 확정된 예산이라는 게 아직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약학대학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를 냈지만 그 금액을 확정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50명 정원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최근 이사회 제출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라는 것이 작년 12월에 처음 제

< 간서명 란 >


출한 자료 외에는 저희가 이사회에 확정적으로 약대 예산이 얼마라고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것이 내년 약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평의회가 반드시 최종안만을 의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적으로 이리이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몇 년간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평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처장 임재익 : 저희 자체도 계약적인 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실험동을 짓는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는가 하는 부분이 계속 바뀌어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동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우선 이사회라도 통과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이것이 학교에서 정한 예산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김용호 : 제가 알기로는 평의회는 자문을 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고요. 어떤 자료든 여기서 확정된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약학대학은 작년부터 모든 아주대학교 구성원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따내자 하였고 기획처는 나름대로의 플랜을 짰을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에서 30명으로 바뀐 이후에 발표가 난 것이 2월 말에서 3월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계획 중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평의회 들어 오면서 약학대학 설립 관련 소요자금추계 및 장학확보 계획이라는 이 1장짜리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희 평의원들이 약학대학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정보까지 밖에 볼 수 없는 것인가, 다른 것은 자문할 수 없는 것인가 그저 글씨, 숫자만 보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여태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는 데 그 실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매일 매일 바뀌는 안을 확정안이라고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짓이고하는 이고하는 이고좋을까 저짓이고하는 이고좋을까 하는 temporary plan이 몇 가지가 계획을 세, 그 중 하나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결정됐imporar될 수는 없죠. 그것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학교의 안이다 라고

< 간서명 란 >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실행 단계에 있는 것을 저희로써는 안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계획이라고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의원 이재호 : 어쨌든 나름대로 확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없다면 추경에 반영도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약대 실험동 건축기금 인출은 9억원을 하고 그리고 약대 신설경비는 14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신 것을 보면 나름대로 확정된 플랜이 있다는 것이겠죠?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비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계획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입니다. 저희가 약대 실험동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드리면 처음 계획을 낼 때에는 아시다시피 성호관 뒤에다 실험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는데 법과대학 등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우선은 학생회관 앞에 짓기에는 위험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도저히 그쪽은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으로 예정을 내라고 했지만 아직 30명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 수정안을 낸 것은 종합관 뒤에 4층짜리 건물을 일단 짓고, 필요하다면 증축을 한다는 정도로 안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부터는 이사회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안을 그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를 들어서 약대 실험동 14억 추경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14억의 내용은 실험동 건축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설계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설계비용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올해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시작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모아 설계를 시작하고 환경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실 환경평가 하려면 몇 평짜리를 건평은 어떻고... 이런 자료들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하죠.

평의원 이재호 : 그게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간서명 란 >



기획처장 임재익 : 네. 아직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내년 3월에 학생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네. 그러나 원래부터 그 건물은 처음부터도 그렇게 지을 수는 없었고요. 그것도 이제 한 1년 후부터 짓는 것으로 하고 사실 그 동안은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급하다보니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대 증축동의 한 층을 쓰겠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어차피 3월에는 실험동을 짓지 못하는 것이고 처음 계획서 제출 시에도 3월에 건설한다고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면 학생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필요하고 소요되는 요구사항들을 제 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그게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액수 가지고는 곤란하다. 더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자문의 목적인데 플랜 자체에 있어서, 지금 처장님께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아주 보수적으로라도 이런 저런 정도의 플랜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사실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것의 예산의 부분은 아니고요. 질문을 보니까 약학대학 내년 1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건물을 크게 짓고 작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상으로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건물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이 바로 contingency plan입니다. 수업은 어디서하고 교수들을 어디서 배치하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하고는 별개의 플랜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이라던 지 실험동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교수님들 방은 지금 종합관이 내년 3월에는 완공이 되니까 거기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플랜에 대해서는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약학대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서포팅 하는 기능이지 예산에서 돈을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국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플랜이 되었는가 하는 게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의하면 약대 신설에 따른 건물 신축, 인건비, 운영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대학 벤치마킹 및 교수 초빙에 1천 2백만원이 들겠다. 그 다음 설립관련 대외행사 및 기념품 1천 4십만원이 되겠

< 간서명 란 >



다. 이런 정도의 플랜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보면 이런 정도로 충분한 것인가를 최종하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큰 플랜 자체가 지금 확정된 것이 없고 다 가변적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것만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좋게 봐도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땀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처장 임재익 : 어떤 것을 땀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저희가 큰 것을 확정하는 것은 실험동입니다. 실험동의 규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약대는 약대대로 의견이 있고 또 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의견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교수회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운영 준비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이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약대 준비를 하는 것은 주로 약대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초빙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기획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약대 준비 교수님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시다시피 돈이 없으면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크게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약대 교수님들이 요청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약대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고 큰 플랜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처장 임재익 : 네.

평의원 김용호 : 그럼 올해 들 돈은 15억 8천9백만원이고 다음 회계연도 까지 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까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큰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15억이라는 금액을 잡으셨고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럼 내년, 그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지출하실 것이고 어디서 자금을 마련하실 것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 아직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획처장 임재익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것을 확정 플랜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박윤규 : 학생들이 말했듯이 약학대학에 대한 앞으로의 연차계획, 시설비, 연구동 건물 교수채용, 교수연구비용 등 종합적으로 플랜을 이 자리에서 기획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한 번 보고회를 갖고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작년에도 법대 쪽에 그런 일이 있었듯이 똑같이 계획을 여기서 토론해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에 일관되게 기획이 없이 한다는 자체도 좀 우습거니와 내년 3월에 바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만 염려하시는 분들한테 해소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전체 보고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꾸 돈 얘기만 해서 그렇지 그 때는 돈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약대 운영방안을 가지고 여기서 토론해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금전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사실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예상을 못했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그런 자리가 꼭 평의원회라든지 아니더라도 학교 전반적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input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호 의원께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대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의과대학이라든지 자연대 교수님들이 함께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안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 문제는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평의원회에서 세 차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부탁했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그 부분만으로는 파악을 못했었고, 저는 단지 큰 계획에서는 이것은 다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회의를 하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7개월 후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설상 누가 주관을 하던 간에 말이죠.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이석)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약대 교수가 주관이 된다하지만 약대 교수가 와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나름대로 총괄해서 해야지 교수한테 다 미룰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조언을 들어가지고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월 며칠 날 다음 차기 평의회를 운영하는 그 전 며칠 날 까지 정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무 참석)

어느 분이 해명해야겠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뜬구름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따져봤자 여기서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자료를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사회에 의견을 기획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 몇 월 며칠까지는 약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안을 보고 해주겠다는 말이 딱 부러져야 차후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 대비책이나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부분별로 맡아서 할 뿐입니다. 예산 및 건물을 짓는 것은 기획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 채용은 교무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약대에서 주축이 되어서 만들 것들이고, 입학에 대해서는 입학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인 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 되겠냐고 하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고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들어 나갈 것들이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김용호 : 제가 왜 자꾸 아까부터 계획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가 하는 것은 저희가 21차 평의회에서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직무대행이 약학대학 설립비용을 교비에서 30억원을 만든다는, 연차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깎아서 30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기획처장 임재익 : 네. 계속하시죠.

김용호 :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갑자기 15억이 되었던라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아까 운영계획이 뭐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 간서명 란 >

의장

말씀하셨는데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비는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고 서비스입니다. 그 돈을 깎아서 약대 설립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약학대학 설립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보니 말이 또 바뀝니다. 이거 만약 학생들이 알아보세요. 학생들이 30억을 매년 교비에서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계획이 없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학교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지금 학생회장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30억을 교비를 깎아서 한다고 했는데, 학교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학생들 등록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연구비를 모아오고 하면서 각 운영부서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다 제하고, 그리고 본부에서의 학교 발전을 위한 본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를 들어 단과대학에서 100% 등록금을 모두 쓰고 나면 뭐 하러 아주대학교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과대학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얘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단과대학을 운영하면서 본부에 서비스 기능을 필요로 해서 오버헤드를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배분예산과 학생 비용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단과대학별로 등록금 환원율은 전부 10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본부의 서비스 기능도 필요하고 거기서 어떠한 투자도 필요한 것이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기능, 예를 들어 종합관을 짓는다던지 그런 것은 한 단과대가 하는 것 아니고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분들이 교무회의에서 다 승인을 하여 통과가 되어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아주대학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금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기금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건축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관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종합관이라는 큰 지출이 있는 때에 약학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대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사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각 단과대학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 간서명 란 >



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자꾸 단과대학, 학생들의 돈을 뺏어가서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단과대학에 대한 서비스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만 약학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법전원도 마찬가지죠. 법전원도 법대 학생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평의원 이재호 : 아까 박윤규 평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근본원인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요청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여기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박윤규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지요. 사실 학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얘기하는 것 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평의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된 접근을 하시면 협조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상의하는 자료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이 될지 담당자 입장으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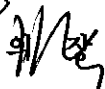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참석)

그런 데 대하여 우선 선례가 되어야 더 진지하게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학대학에서 대한 것을 오히려 평의원회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획처장님, 학교의 큰 덩어리 사업들이 많잖아요. 사업들 자체가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기본계획이 있으나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다듬어 나가는 그런 내용일 텐데,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획처장 임재익 : 기본계획이 없다는 말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없

< 간서명 란 >



지 않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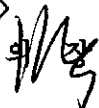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서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회에 이미 학교 안이 결정 되서 올라간 것을 다시 평의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의원들 자체가 이것이 과연 심의감이나, 결정된 것을 뒤집자는 얘기냐 하면서 자꾸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대학 측에서는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평의원회에서 자꾸만 건드리니까 갑갑하시잖아요. 그런 건이 몇 건 있었거든요. 또 하나가 평의원회가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학교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거지, 이미 이사회에서 결론 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계약 과정이 어땠고 평가 자료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끝난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어느 누가 보기에다 잘못된 거 아니냐. 비밀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으면 아 이런 과정에서 된 것이었구나 정에면 될 것인데 이게 과연 평의원회가 항상 심의와 자문이라고 걸어놓고 결론 낸 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려니까 서로 불신만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학교 대학과 서로 이해를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이렇다, 가장 근본적인 자금 동원계획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사실은 기획처에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학의 기획처장이 기업의 기획본부장하고는 틀린 겁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평의원회와 조정을 하셔야지고 하셔야죠.

기획처장 임재익 : 좋은 말씀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기획처가, 전 학교의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사회하고의 비밀이 많은 것이지.. 요즘 시대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 터놓고 약대가 들어오면 좋다, 약대를 어떻게 유치할 거냐. 유치하면 몇 명을 뽑을 것이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학교의 예산이 적으니까 일단 탄 교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차후에 짓는다, 아니다, 예산 계획이라는 것은 100% 짜서 맞는 게 아니고 좀 흔들어서 오버할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계획인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평의원 이해진 : 박위원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을 여기에 의견을 심의해달라고 의견을 내놓았다가 김용호, 임원형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이 자료가 나가서 우왕좌왕하고, 교수님들 각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 간서명 란 >




의견 저 의견이 나오고 동문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럴까봐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처장님의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내용을 모르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의자문하자고 얘기는 안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평의회 자체가 아 저분은 평의원들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 평의회 자체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측에서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본 가닥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공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평의원도 이해를 하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와 이런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여기서 심의와 자문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임제익 :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가장 이상적인 조직에서의 모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데는 기획처장이 잘못한다고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꼭 기획처장 아니면 학교, 또는 일방적으로 평의회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금 구조적인 소통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공을 넘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획처장 한사람으로서 지금부터 평의회와 학교의 관계를 싹 바꾸어보자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그런 주어진 환경을 제가 다 바꿀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 드리고 해결 해주길 바란다면 가장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서로 협조하고 아이디어를 짜낸 다기 보다 히스토리가 좀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 물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본부 사람도 긴장하고 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오지 않았나, 그러다보니 서로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로서로 소통의 장을 열고자하는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교수뿐 아니라 학생대표 동문 대표 분들도 다 계시지만. 저도 어찌다보니 보직 교수가 되어 학교의 일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각 구성원들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노력이 전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임원형 : 학부생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약학대학 관련해서 약학대학 학장님이 정해지면 학장님이 나오시던지 기획처장님께서 나오시던지 가장

대표되시는 분이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전원에 대한 학부생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때에 모든 학부생 좋아했습니다. 법대생들도 북치고 장구 치고 축제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학부들 그리고 학부생들의 처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학생들의 공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빨리 다산관 뒤에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성호관 안에 그림까지 계획도와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대부분 성호관에서 했었던데요. 지금은 다 못합니다. 학교가 확확 차면서 못하게 했죠. 물론 다들 처음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법전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결국 종합관이 몇 년 만에 지어지면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질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약대가 생겨가지고, 이미 학부생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신입생들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미어터질 때 신입생 들어왔기 때문에 불만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학교는 사람이 많고 그런가보다 합니다. 저희는 선배로써 아니다. 원래 학교는 예전에는 그나마 강의실이 좀 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강의실 빌리는 거 보면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이전 그나마 부수적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학부생들입니다. 지금 법학부 학생들이 겪는 모습을 우리 전체 다른 학부생, 제가 속한 사회대 학부생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법전원 생긴 다음 교과목이 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늘다보니까 처음 듣는 과목들이 늘었습니다. 그럴 때는 좋았죠.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 다 빠졌습니다. 교수님들도 몇 분 안 남으시고 강사 분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것을 학부생 아무도 몰랐어요. 법전원 가신다는 소리만 들은 거죠. 제가 옆에서 본 것입니다. 수강신청날 제가 법대 학생회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화가 막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러나 법대 학생회장이 알 방법이 있나요. 학교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교학팀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너희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 답니다. 이게 공부라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동결입니다. 올해까지 4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대 교수님 늘고 법대 교수님 늘고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회대 교수님 절대 안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두를 위한 일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학생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 간서명 란 >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과 학생들이 법대가 사라질 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듣고 싶은 게 많은데 법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같이 듣느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부생에게 말은 할 수 있죠. 연계전공이 있지 않느냐. 법학에서 설마 없어지겠느냐, 08학번 군대 다녀와서 법학부 과목을 어떻게 한 두 명이 듣겠느냐, 적어도 연계전공으로 남겨두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가 그런 생각을 할지 안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이러다가 사라지겠지. 지금의 자유전공,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없어지는 학부에 대해 학교가 냉혹하게 하더라고요. 학부생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연계전공 좀 해주시죠.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는데 보건 의료계열에 대해서 연계전공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비를 가지고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우리학교가 이만큼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학생들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학부생으로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학교가 그것을 할지 안할지를 모르니까.. 학생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평의회 때라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며칠까지 하겠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다음 평의회가 먼 시일에 개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금방 열릴 것 같은데 그 당시까지 기획처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언제쯤은 될 것 같다고 언질을 주셔야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돌아가시면 전 평의회로서 무기력 감도 느끼고요. 학생으로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평의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낼까 합니다. 저희 평의원들이 사실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협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평의회에서 다 진행할 수도 없고 예산심의 자문을 하더라도 항목 하나하나를 체크 하다가는 우리 평의회가 단순히 별도의 일거리를 받고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의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우선 평의원들끼리 그 내용이 협의가 되어야 평의회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임원형 평의원 얘기하듯이 사회대에 대해서 얘기 한다 하면 이거 한 30분 얘기해도 모자라죠.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큰 선을 그어 범위를 정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했으면 좋

< 간서명 란 >

졌습니다. 물론 답답해서 그러시겠으나 저는 시간 계획 없는 회의 진짜 처음 합니다. 평의회. 안건이 몇 개가 나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안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맥을 잡아야 할 텐데 이젠 한 건 끝나면.. 약학대학? 오늘 얘기 나왔죠, 다음 평의회 때 또 나옵니다. 평의회 이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2주에 한 번씩 평의회해서, 오늘도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평의원분들은 물론 다 대학에 계시고 이게 주로 업이실지 모르나 여기 주업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업이 아니신 분들도 평의회 구성원들과 같이 자문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치 주업인 듯이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의회 언제 한다는 내용이 나올 때는 주제가 무엇이다 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밥을 먹고 야간까지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없자나요. 시간 계획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에서 평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른 평의원들에게도 시간 안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약학대학 건은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약학대학 건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료요청이나 출석요청이 있었음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경예산 자문을 하는 자리에서는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약학대학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평의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국 그런 안건들이 해소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면서 누적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약학대학 건만 해도 몇 번 전 회차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오신 대로 약학대학 관련해서 다른 건하고 믹스 되어 가지고, 예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약학대학 건 관련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하고 논의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에 그런 설명하고 논의하고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상호 :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대학은 중고등학교도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계획이 다 들어가요. 부지는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교육과정은 이렇게 하고, 교육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인가를 받는데, 대학에서 단과대학을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인원수 20명만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처장 임재익 : 교과부에 제출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평의원 박상호 :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면 되지. 그게 기본계획이고 그것을 앞으로

< 간서명 란 >



날짜가 가면서 대학의 실정에 따라서 자꾸 다듬어 가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 자꾸 아무것도 없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그거 기본계획이라도 갖다 놓으시고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으시고 이사회 가서서 대학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없다고 하시면 지금 이 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끌고 있어요. 지금. 답답하네요. 기본계획이라도 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박상호 평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음 평의원회에서라도 진짜 기본계획이라도 교과부에 낸 것이라도 라도 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평의원 박윤규 :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다가 이해관계가 있는 건이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지만 서로가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이고, 같은 직업군에 계신 교수 분들이고 교직원분들이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서로가 내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내용은 없어 보여요. 사실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나 새로 늘린다거나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했다가는 큰 일이 납니다. 모두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하다가 되지 않으면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계획은 있는 거죠, 일단. 추정 예산도 짜잡아요, 실제 예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더 넣고 빼고 하는 거 잡아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게 가다보면 같은 교수님 들끼리 이렇게 하시면 절끄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이해진 평의원 이석)

아들 같은 친구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터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이렇게 뻗히고 뽕뽕 언 마음으로 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평의원회 3년차인데 더 작년 재작년보다 더 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세상을 답답하게 어떻게 살아가요. 실제 나가보면 글로벌이다 뭐다 정신없이 뛰다고 나오는데 안방에서 돌아가는 것도 서로 터놓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진짜 안 좋은 방식이에요. 뭐가 무섭고 뭐가 겁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고 금년에 못하는 것은 내년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인데, 그거를 좋은 말로다가 돌리고 여기 공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 간서명 란 >



우리가 좋은 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발전해나가자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없
이하면 안 되죠. 여기 회의자료 첫 장에 보면 대학본부의 약학대학 설립 관련 재정
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논의라고 하는데, 예산을 짤 때는 계획이 없이는 예산이
안 나와요. 이게. 짤 수가 없죠.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무엇으로 운영
이 되는 건가 이런 상식적인 것을 갑갑하게 하면 안 되죠.

(이해진 평의원 참석)

안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장 박영무 :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처장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해진 평의원 퇴실)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고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결
의를 하겠습니다. 약학대학 설립에 관한 원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수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원안이 어떻게 되었고, 허가 받을 때는 어떤 조
건으로 받았고 그 진행과정에서 현재 어디까지 왔다 하는 세 단계 상세보고서와 관
련된 예산 계획을 다음 평의원회 때 까지라고 하지 말고 2주일 내에 평의원회 제출
해주십시오. 그러면 각 평의원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음 평의
원회 때 질문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이 어떤 게 있었고 허가받을 때 어떻게 받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예산 계획들을 보고서
로 만들어서 평의원회에 2주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대에 관련된 내
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조중열 : 총학특별복지장학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지금 증액
을 해서 9억원정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운영책임
부서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운영부서는 학생처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29대 총학 특별 복지장학은 타이틀 그대로 가계곤란한 학생들 중
심으로 해서 원래 학교에는 가계곤란 장학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
로 29대 학생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좀 더 학생들에게 귀속이 되는 사
업으로 추진코자 학생처에다 요구를 했고요, 학생처에서 기획처에 요구를 했던 사업

< 간서명 란 >



입니다. 이는 기존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최근 6월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증액이 되어서 그 재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9억원이라는 29대 총학특별복지장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가계곤란 장학,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중심으로 일인당 1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공지를 본 학생들은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학생처에 제출하면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박철균 평의원 이석)

평의원 조중열 : 기존 복지장학 예산규모는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매년 달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과부에서는 복지장학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전체 장학의 30%를 복지장학으로 하라는 큰 기본 원칙을 정해서 학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이 장학금을 내년에도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그것은 내년 사업 재구성해서 본예산 책정시 전체적인 운영수지 등을 보고 재 책정을 해야합니다. 이 사업을 할지냐 말지냐를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룸 자체도 29대 학생회 복지장학 이렇게 되어 있어서 1회성 행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장학금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까요? 니드 베이스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의대교수장학금이라고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완전히 니드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데, 이룸도 그렇고 말씀도 들어보면 내년에 돈 없으면 못한다 하게 될 성격인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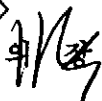
예산팀장 조정숙 : 학교 재정 운영은 늘 운영수입에 고려해서 지출예산도 편성하잖습니까, 내년에 있다 없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장학금도 그렇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물론 정해져있는 장학은 있습니다. 아주사랑장학, 성적장학 등 기본적인 장학은 유지가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줄어든 예가 있습니까? 장학금 총액이?

< 간서명 란 >



예산팀장 조정숙 : 장학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름을 보든 될 보든 자칫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요. 만약 내년엔 학생들이 작년에는 500명이 받았는데 올해에는 백 명밖에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장학금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대 총학특별복지장학 명칭은 이렇게 정했지만 학교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복지장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기본적으로 장학금 명칭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름을 봤을 때 상당히 놀라운 이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그 기금을 출연하는 사람 이든 단체 이름을 전다든지,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지금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어진 이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추측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요,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교과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앞으로도 복지장학 정책은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장학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장학은 교과부가 준 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복지장학정책은 확대해 나갈 것이고 줄여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이 어렵게 된다면 외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부금 확보 이런 것은 별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과제이고 복지장학 정책은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갈 겁니다.

평의원 임원형 :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기구 주요 증감요인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강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교체인지 추가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교체입니다.

(박철균 평의원 참석)

학생지원비 동아리 및 소학회 문화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등록금 협의를 통해서 학생행사나 이런 게 1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에 대한 보안 차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사실 등록금 확정을 위한 협의과정 속에 일반 행사비를 다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교수행사, 직원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학생들 행사비도 같이 줄이자 라는 안을 냈었습니다. 일반적 학교교내 행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사도 같

< 간서명 란 >



이 줄이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등록금 인상 요인의 우선 순위에서 조정되지 않겠냐 하는 상호 협의 하에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교직원도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고 협조했습니다.

(이재호 평의원 참석)

그런데 학생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동아리사업 부분이라든지 소학회 활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 부분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해왔던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나가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처가 학생행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워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일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희가 기금에 있어서 펀드에 편입된 부분하고 미편입된 부분하고 나누어서 내역을 알려 달라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한두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기금이 현재 펀드에 편입된 것이 60억원, 미편입된 것이 65억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기금인출을 21억원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저희가 자체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건축기금으로 편입되어 있는 펀드가 삼성증권 사모펀드 60억원짜리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이것은 기금인출 하겠다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펀드 자체는 60억원짜리인거죠?

예산팀장 조정숙 : 네, 60억원 중에서 21억원 인출하겠다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올 3월부터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록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추경예산에서 볼 때 시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별첨자료는 교과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평의원회에서 자문을 위해 요청해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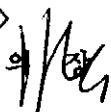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근데 건축기금 총액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가로 하면?

예산팀장 조정숙 :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네, 매월 평가를 하게 되면 달라지겠죠.

평의원 이재호 :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축기금은 얼마나 이게 달라지겠죠?

예산팀장 조정숙 : 드린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09년 결산적립금을 다시 3월 1일부 현재 시가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 간서명 란 >



말씀이신가요?

평의원 이재호 : 네.

예산팀장 조정숙 : 그렇게 작성은 안했습니다. 급한 요청으로 작성시간이 없었고요. 차후 인출할 때는 평가액을 염두에 두고 인출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기금별로 해서 펀드 매입액이 반을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랜을 주신 것을 보면 2010년 기말적립금 추정액이 건축기금 펀드가 38억원이고, 미편입된 자금은 254백만원으로 펀드 자금이 15배 정도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이 포지션들이 50프로 넘는다는 거죠? 펀드대 비펀드의 상대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걱정이시라는 말씀이신데요.

기획처장 임재익 :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가능한 것은 환매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환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환매타이밍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지금 그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평의원 오동석 : 그렇기는 하지만 87억원이 건축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21억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장부가 계산이 되려면 정확하게 예산 책정이 되지 않은 거죠. 이익이 나게 되면 장부가로 10억원만 빼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30억원 내지 40억원으로 평가를 해서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게 엄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환매라는 것이 예상가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일부 환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매가 될 수 있는지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가를 산정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말씀하신 인출가액은 정해져 있는 거구요. 말씀하신대로 평가금액을 표기하지 않은 거로 인해 작성된 표상에서 차액을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

(임원형 평의원 이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출하려면 당연히 실질적인 평가 인출액을 보고 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표 상에는 결산기준을 가지고 얼마를 인출하고 얼마를 적립하면 결산에 가서는 얼마가 지금 현재 적립이 되겠다는 펀드와 비펀드의 구분으로 작성되었습

< 간서명 란 >



니다. 평의회에서 주신 추가지문에 대해 그렇게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드린 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면 2010년 결산 시점까지는 최소한 건축기금 관련된 펀드는 대부분 환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기획처장 임재익 : 진행하면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대개 어떻게 된 건지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현재 펀드의 수익이나 손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전혀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오동석 : 대강 예측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공개하기는 어려울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어려운 것 보다는 사실 너무 예민하다보니까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60억원은 원금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임원형 평의원 참석)

(김관균 평의원 이석)

평의원 이재호 : 자금운용위원회가 환매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체제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새로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자금운영위원회가 모여서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운영을 맡은 경리팀에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핫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 평의원 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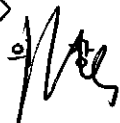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환매 타이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원금 회복하면 그 시점부터는 환매한다든지?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진 않고 목표는 원금회복하면 하는 걸로.

평의원 이재호 : 그럼 경리팀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게 해서 자금운영위원회에 올립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운영위원회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팔로우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경리팀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제안을 하고 그럼 운영위원회에

< 간서명 란 >



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게 이틀이면 며칠 걸리는 상황에서 시장상황이 변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건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시점을 놓치는 대신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상황에 맞춰 시점을 찾아가게 되면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의장 박영무 : 등록금 수입에 보면 일반대학원이 7억2천만원 정도 늘어났죠,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인데,

(김용호 평의원 참석)

대학원 조교장학 제도가 변경되어서 -5억원, 지금 학교의 대학원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장학금을 늘리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등록금 수입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일반대학원의 장학금은 5억원이 줄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5억원이 줄어든게 아니고 10페이지 보시면 조교장학과 외국인장학이 5억4천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학비감면이라고 해서 4억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시면 그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데 일반대학원 학비감면증가, 그게 4억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억4천만원은 다 줄은 게 아니고 대학원에서 줄은 것은 조교장학으로 2억3천만원입니다.

(김관균 평의원 참석)

늘어난 것이 4억7천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대학원 장학은 이 제도 변경으로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 외국인장학이 2억원 줄었고 다른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장학은 2억원 얼마정도 늘었습니다. 항목이 그렇게 해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의장 박영무 : 종합관 건축 상황을 예산과 함께 설명해주시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7월 30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2.8%이고 공정상황은 11층 골조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12층이 진행 중입니다. 외벽 마감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예산은 어떤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총 건축비용이 328억34백만원인데, 2009년 128억32백만원이

< 간서명 란 >



지급됐고, 2010년도에 집행완료액이 두 번째 보시면 예산이 163억원이 잡혀있는데 전기이월 25억9천만원, 기금인출 87억1천만원, 차입금이 50억원입니다. 그 중에 8월 5일 현재로 전기이월에서 24억67백만원, 기금인출이 29억29백만원, 그래서 집행완료액이 53억96백만원입니다. 잔액 10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37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장 박영무 : 예산계획이나 자금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네.

의장 박영무 : 지난 번에 차입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아직 차입 안 했습니다.

의장 박영무 : 병원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못하셨는데, 건축과정, 건설사 선정과정, 설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기획팀장이 프로세스를 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간사 김근태 : 기획팀에서는 건물을 짓겠다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책임 회피하는 말씀 하시지 마시구요.

기획처장 임재익 : 책임회피가 아니고 기획처는 플랜을 세우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총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기획처장 임재익 : 진행상황은 총무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 문제도 세 차례나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고 답변조차 부실합니다. 약학대학 계획 및 실행 안과 함께 세 번이나 요청한바 있습니다. 약학대학 자료와 함께 2주 내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동표 참석)

평의원 이재호 :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9학년도 결산 자문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필요하다면 평의원 중 한 사람이 자문의견을 설명 드리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시일이 급하고 전례가 없다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어려도 있었고, 결국 서면으로 보고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문한 내용들이 교무회의 구성원들에게 아니면 재단 이사들에게 학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는지가 궁금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당연히 이번에도 자문을 할 것이고 자문의견 정리를 할 것이고 자문의견이 당연히 자문을 요청한 분들에게 가야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일단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총무처장이 했고 결산한 내용들이 회의록이 교과부까지 제출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회의록은 제출되나, 의결하고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자문의견이 진술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획팀 진성호 : 지금까지 대학평의회에서 자문의견을 기획팀으로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결산자문은 총무처장, 교무처장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평의원 박상호 : 예결산(안)이 자문사항입니까? 심의사항입니까?

기획팀 진성호 : 자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자문사항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평의원 이재호 :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처장님께서라도 뭔가 구체적인 루트를 확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학교 공식기구가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지가 불명확하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문 의견을 내고 기획처장께서 교무회의에 그 자문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문의견을 교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자문한 것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문을 왜 할까요?

평의원 박철균 : 평의회에서 자문의견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평의원 전체 의견은 회의록 자체가 공식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이 다 아닌가요?

평의원 이재호 : 이렇게 되죠. 다음 주 화요일에 교무회의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회의록 작성이 완료 될까요? 회의록을 첨부하면 그 긴 회의록을 다 보실까요?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2009년 결산자문을 누가 작성을 한다고 회의 말미에 정하고 그렇게 했었죠. 처장님 계신 상황에서 이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어

< 간서명 란 >

이재호

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끼리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실제 기획처장께 자문의견서를 전달해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교무회의에서 그것이 교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그것은 제가 답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의회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는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지난 교무 회의 때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팀 진성호 : 예산결산(안) 자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안) 자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결산이요.

기획팀 진성호 : 사실 예산결산(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알기로는 교무회의 자리에서 결산자문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자문회의를 교무회의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일단 주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자고 자문회의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교무회의에서 해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과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평의회 회의록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왜 첨부가 되어야 할까요. 말하자면 최종적인 결산안, 예산안이 교과부에 제출될 때도 평의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야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규정의 취지가 명백한 것인데, 바로 다음 단계인 교무회의에 자문의견이 전달되는 것조차 주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그건 제가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평의회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돼 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게 틀렸다고 개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그것도 해오던 절차이고 그것을 바꾸자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화요일 회의 때 설명은 누가 하시는지요?

기획처장 임재익 :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가요?

평의원 이재호 : 화요일 추경예산안 설명이요.

< 간서명 란 >



기획처장 임재익 : 제가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시죠. 그러면 기획처장께서 여기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명하셨고 의견 들으셨고 그리고 나서 다음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그럼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평의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저는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의원회에서 우리가 자문했던 활동이 교무회의에서 어떤 담당,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자문한다고 했을 때...

평의원 이재호 : 이것에 국한하시죠.

기획처장 임재익 : 저도 사실은 예산 자문을 처음 한 것이고 제 경험으로는, 앞으로의 프로세스들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당장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근태 : 그 동안에는 예산자문서가 없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자문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구두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회의록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고, 자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문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의원 박철균 : 평의원회 예결산 자문의견을 교무회의에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까? 규칙상, 저는 별개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데, 교과부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면 자문한 내용을 교과부에 회의록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자문한 내용을 반드시 교무회의 심의과정에 전 단계 절차로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자문은 왜할까요?

평의원 박철균 : 자문의견은 평의원회 위상이 교무회의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 사전절차로 자문의견을 내고 그것을 요약정리해서 교무회의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거죠. 자문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절차로서 자문이 들어가는 거지, 교무회의는 교무회의대로 예결산 심의의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 보고가 되는 거죠. 이사회 보고될 때는 평의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저희가 자문하는 것은 총무처장님 혹은 기획처장님을 자문하

< 간서명 란 >



는 거군요.

평의원 박철균 : 예결산을 확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무회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로서 교무회의도 심의의결을 하지만 확정은 아니죠. 예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고, 이사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절차로서 자문을 하게 된다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자문 의견을 저희가 내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자문의견이 결들여져서 이사회에 올라가게 되면 그 모든 게 확정이 되어서 교과부에 보고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결격이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 자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추정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간사 김근태 : 재작년 말씀이십니까?

평의원 이재호 : 재작년입니까? 펀드 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교육부에 알아보고 자문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야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자문행위는 중간에 어느 때라도 가능한 거겠군요. 말하자면 교무회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박철균 : 제 생각에 이사회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회는 예결산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관문이니깐요, 교무회의 전에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문 결과를 글로 써서 교무회의에 보고해야 할 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병렬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교무회의도 심의의결을 해야 되고 저희도 자문을 해야 되고, 그게 모여서 이사회로 올라가는 거죠. 만약 이사회에서는 평의원회 자문이 없는 예결산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하든지, 절차상에 정해진 것을 왜 안 했느냐, 먼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올라오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겠죠.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말씀에 대해서도 교무회의 전이나 후냐 중요하지 않다, 만약 이사회에 자문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자문의견이 전달이 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자문이라는 행위가...

< 간서명 란 >

의/한

평의원 박철균 : 회의록이 첨부되어서 올라가지 않나요?

평의원 이재호 : 정리하면 40~50쪽 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 회의록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의견서를 전달할 수 있겠군요.

평의원 오동석 : 회의록에는 날인이 되는 거죠? 자문의견까지 확인하면서 날인을 하면 되겠네요.

평의원 이재호 :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면서 자문을 받은 의견을 얘기를 듣고 심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평의원 박철균 : 예전에 예결산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예결산 자문 위원장이 교무회의에서 보고를 했죠.

(김용호 평의원 이석)

지금은 평의원회에서 자문을 했다고 해서 평의원회 의장이 교무회의에서 보고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예결산자문위원회와는 위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학교의 하부 기구로서 예결산자문위원회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평의원 이재호 : 의장이 할 필요는 없죠.

평의원 박철균 : 맵핑을 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제 생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자문회의가 어떤 프로세스 앞에 있다면 자문회의 결과는 그 다음 프로세스에 전달되어서 심의 과정에 참고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뒤돌린다든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부의장 주동표 : 외부에서 오신 평의원들께서 계셔서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 없는 데,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결산 자문행위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예결산 사항을 위해서 자문을 하라는 거지, 교육부에서 무슨 자료를 첨부하라는 것도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평의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자문서가 예결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달을 하자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실왕설래가 되는 겁니까? 정말 평의원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평의원회 목적이 뭐니까? 학교가 잘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 평의원회가 학교에 브레이크를 거는 기구도 아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 간서명 란 >



브레이크를 걸겠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거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잘 나가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거는 것인데, 그것조차 고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회 예결산 자문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관련되시는 모든 분들이 학교가 좋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죠.

(김용호 평의원 참석)

그게 과거에 프로세스가 있었건 없었건 무슨 상관입니까?

의장 박영무 : 아마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학교 운영이 되고 있다면 총장이, 우리는 지금 총장도 없습니다만, 이런 자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렇지 못한 학교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학교 측하고 다시논의하기로 하고, 더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대학과 병원 및 학내 건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2주 이내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처장 임재익 : 병원건축 관계 그 자료는 저희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의장 박영무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회의 동안 과거 몇 년 동안 펀드 관련 문제점, 회계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21차 내지는 22차 회의에서 잘못을 시정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밝히기 위해서 감독관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학교에서 감독관청의 감사에 버금가는 엄정성을 보장을 하고 이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내부특별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특별감사방안을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마련해온 안을 보고를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평의원들께서 동의를 하면 이 안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 평의원께서 그 동안의 논의된 안을 보고를 해주세요.

평의원 이재호 : 저번 회의 말미에 이해진 평의원께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만든 안을 갖고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일부 표현에 있어서 다듬을 필요도 있고 해서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이해진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마련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안을 이해진 의원께 보냈었고 이해진 의원은 사실 다른 회의 때문에

< 간서명 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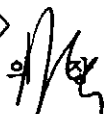
의/장

간 상태고 좀 전에 제가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해진 의원 의견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감사 안에 있어서는 감사의 성격은 대학평의회 결의 및 요구하는 특별감사를 시행하는 식이고, 목적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목적이고,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하나는 2007/8년에 펀드투자를 결정한 과정과 경위,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파악하는 것, 감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관련된 주체로 본다면 재단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형식 요건으로 보면 학교가 감사의 주체인데 재단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해서 결국은 학교로 국한하되 다만 감사의 목적 자체가 실제적 진실의 파악이니 감사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단이든 금융기관이든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금융기관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만약 학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학교의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겠죠. 의원의 구성에 있어서 이해진 평의원과 김광균 평의원이 대학본부와 협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본부 추천 2인, 교수회추천 2인, 동문회 추천 2인으로 하되 두 사람 중 1사람은 회계전문가로 하고 다만 개개 감사위원의 견해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은 감사를 제한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최종 보고서 기술에 있어서도 일부 소수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하고, 특감 위원장은 특감 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감사 시기는 8월로 하고 기간은 1주-1개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감사위원이 판단할 때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과반수 찬성하면 1회에 한해서 2주 이내 연장 가능하도록, 감사 결과의 보고는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장직무대행과 대학평의회 양쪽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해진 평의원은 방학 중에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것은 사실 감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부 감사안이 충분히 대학본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 안대로 진행함으로써 외부 감사를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해진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정도의 공동감사(안)을 평의회에서 받아주시면 이 안을 갖고 다시 대학본부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대학본부가 이 안을 수용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인가요?

< 간서명 란 >



평의원 박윤규 : 협의해서 나온 것 아닌가요?

평의원 이재호 : 협의해서 나온 것에 약간의 수정이 있는, 말하자면 수정제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진 의원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었는데요, 대학본부가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문제 때문에 꽤 많은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는데 차제에 특별감사가 잘 진행이 돼서 그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갈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방안이 타당하면 결의를 해서 대학 본부 측에 보내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안을 들으셨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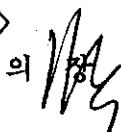
평의원 박윤규 : 대학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들겨도 아무 답이 없고 그랬을 적에, 소음이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학생대표도 계시지만 이렇게 까발려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감사의 목적에도 펀드투자 및 회계처리에 의문점 해소 및 실체적 진실의 파악,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강구하고 하나 추가할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야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무조건 파헤치는 것, 사실은 치부라는 것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제가 치부가 있다면 남한테 다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안심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앞으로는 잘 되 가지는 취지로 다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좀 건설적으로 나갔으면 그런 안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지만 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궁리를 얼마나 했을 것이며 만약에 불응했을 적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지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 주동표 : 이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박영무 :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관청에 감사요청 하는 걸로 이미 결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 이전에 충실한 내부 감사를 해보자는 안이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많은 이야기가 되고 평의원회에서 안을 학교 측에 주기도 하고 검

< 간서명 란 >

의 

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총장님하고 기획처장님 만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논의를 했는데, 이걸 할 의도가 뭐냐 그 다음에 혹시 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할거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가정을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평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그러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제 사실파악, 사실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아 문제가 있구나 지금 제 생각은 제가 평의원 3년간 하면서 펀드 투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펀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쪽 다 막연한 추측가지고 하니까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나쁜 악의적인 것으로 쓰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데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파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평의회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황이 그랬구나, 이해할 것은 이해해주고 문제 삼을 것은 문제 삼고, 이 감사를 하는 전제조건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파악에 초점을 두고 어떤 추측이나 가정도 하지 말고 진실파악에 초점을 뒀으며 하는 생각입니다. 총장님께서도 총장님 그건 총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의장 박영무 :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고 제안된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의원 박철균 : 제가 내부감사를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한 이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내문제는 학내에서 최대한 풀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우리학교가 외부에서 봤을 때 나쁜 학교로 비춰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내에서 풀어감으로써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감사(안)은 제가 볼 때는 만약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이것을 수용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감사보고서를 다시 외부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안)에다가 제 생각에는 이런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되는 감사인 만큼 구성원들은 충분히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감사결과를 가지고 외부감사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간과정으로서 내부 감사를 한 단계 거치는 것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평의원 김관균 : 이 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추측이나 전제조건 없이 오로지 사실관계만을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안)의 소수의견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소수의견까지 기록을 하게끔 한 것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감사하신 모든 분들의 의

< 간서명 란 >

의/김

전을 상세하기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평의원들께서 생각하는 데, 제3자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생각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평의원들께서 수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일부 분들이 수용 못할 수도 있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꾸 전제조건을 달다보면 지금 학교 측에서도 자료제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주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안 주는 겁니다. 이 평의회에서도 제 생각인데 어떤 것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어떤 전제나 의도나 이런 것 없이 일단은 사실만 파악하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 평의회 구성이 교수님 5분, 교직원 대표 2분 졸업생 2분 재학생 2분 학부모님 대표 2분 이렇게 해서 13분 그동안 13분이 각자의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실제적 진실관계를 밝히면 여기서 여러 평의원분들의 생각이 각자의 생각과 주관 을 갖고 다양하게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공동감사의견이 부적절하게 나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다수가 생각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은 또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고, 제 생각은 어떤 전제나 그런 것 없이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평의원님들께서 감사결과를 놓고 이야기 하시는 게, 어차피 감사결과가 나오면 평의회에서 논의하게 되겠죠. 그냥 감사결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겠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학내 문제는 학내에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그걸 굳이 외부까지 가지고 가서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감사 결과 보고서를 총장직무대행과 대학평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대학평의회가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그 보고서를 보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추후 논의하게 됩니다.

평의원 박윤규 :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록해서 전달해 줘가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 쪽에서는. 지금 기획처장님 요만한 것만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시는데 하물며 그런 것을 쉽게 얘기 하겠습니까, 제일 걱정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알았다면 제일 흥분을 잘 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손해 본다고 생각할 건데, 일단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터트려서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 간서명 란 >



아주대학교가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것 막 손해 본 것 몇 십억 원이다 교비를 썼다 안 썼다 할 때 보면 이것 참 피튀기는 얘기다 이거죠, 내부적으로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분들에게도 그런 인식을 충분히 줘야 이걸 받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감사한다는 식으로 감사한다고 다 파헤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보는 것뿐인데, 요청을 하는 건데 안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의장 박영무 : 감사의 목적 달성 여부는 학교 측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염려가 없지 않으나 성실하게 응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겠지요.

평의원 김관균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 개개인에게 상당 권한을 부여하면 되죠.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 개개 감사위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하며 개개 감사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의장 박영무 : 감사위원이 자료 제출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특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2인씩 들어가 제시고 사실상 저희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학교 내 실정에 있어서는 평의원회를 통해서나 특별감사 보고서를 보고서나 작년부터 이어온 학생회 자료라든지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 종합해봤을 때 특감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회계자료를 보는 일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을 모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 대표도 특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평의원분들께 여쭙습니다. 저희는 꼭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평의원 김관균 : 김용호 평의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특감위원회가 다양한 구성이 되면 좋는데 형식적으로 한계가 있어서요.

평의원 박윤규 : 어차피 다 갖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토론할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요?

평의원 김관균 : 그래서 제가 독립적인 자료요청의 권한, 소수 의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감사 위원 개개인이 6분 제시면 생각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독립적으로 감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기술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으로 다 판

< 간서명 란 >

김관균

단을 하는 건데 제 생각은 형식적인 한계가 있으니깐 그리고 특별감사위원의 구성과 권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의장님께서 잘 정리해주시고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전달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의장 박영무 : 특감 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각 구성단체들에게 어떠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물어볼 겁니다. 학생입장에서 의견을 항상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요.

평의원 김용호 :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간이라든지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일이 진척이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도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개강을 하고 나서 학업에 정진을 해야 되는 게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는 저희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안이니까요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부의장 주동표 : 학생대표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의견제 의견은 그러네요, 특감위원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렵게 가진 기회를 실행하는 건데 조금 아쉽더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직원분들도 제시고.

평의원 김관균 : 2분을 동문에서 추천한다고 할 때 2분을 누구를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평의원 박상호 : 재학생이나 동문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평의원 이재호 : 약간의 보완책으로 감사 중점사항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용호 : 예.

평의원 박윤규 : 어차피 보여줄 거면 다 보여줄 거고 안보여주면 안 보여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이 자리에서 다 오픈할거고 그러니까요.

의장 박영무 : 그럼 대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아까 제안 드린 외부감사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박영무 : 김관균 평의원이 잘 얘기하신 걸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단다는 것은 감사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깐. 그

< 간서명 란 >

의장

럼 제출된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안을 상정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만장일치로 찬성한 걸로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있습니까?

평의원 박철균 : 저는 전제조건을 다는 걸로, 내부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외부감사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 하나, 나머지는 처음 제안된 이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남은 일은 특감위원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일정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다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펀드 관련 공동감사(안) 결의 현황
평의원 10명 찬성으로 결의(박철균 평의원 반대, 이해진 평의원은 추경예산(안) 자문 후 개인일정으로 퇴실)

평의원 이재호 :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안을 갖고 이 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취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진행상황은 의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교수회, 대학본부, 동문회 등과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특감을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까 추경 자문한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특별히 작성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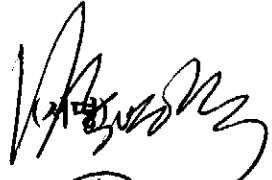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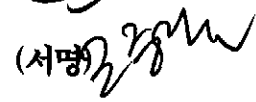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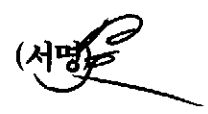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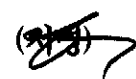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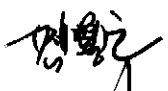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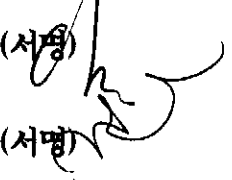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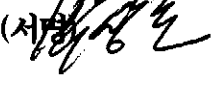
의장 박영무 : 지난 번에도 따로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처, 교무처, 총무처가 서로 핑퐁 게임만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김용호 평의원 이석)

총무처장이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크게 다른 내용이 전달된 것 같아요. 회의록이 나오려면 거의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두 페이지로 정리하여 평의회의 공문으로 총장직무대행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챙겨보지 못한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이걸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2010년 8월 6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